



## 타운미팅(장려상)

#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약 방안 도출을 위한 KATS 타운미팅

### 1. 타운미팅이란?

지식경제부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9월1일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업무효율화 경진대회의 일환으로 「타운미팅(Town Meeting)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타운미팅은 GE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GE는 이를 통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룬 바 있다. 타운미팅의 유래는 미국의 식민지시대에 뉴잉글랜드 통치시스템에서 나온 것으로 마을 회의를 하듯 자유스럽고 거침없는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주민총회 형식의 회의를 말하며, 미국의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기호가 되었다고 한다.

타운미팅에서는 계층별, 분야별, 지역별 제한 없이 특정 업무에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업무에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타운미팅 전에 참가자들은 하루 내지 이틀 전에 소그룹별로 모여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타운미팅이 시작되며 그 인원은 작게는 15명부터 많게는 150명 정도까지 참가하게 되고 참가자 전체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타운미팅은 조직에 있어서 그 의사 결정을 상위 관리자 또는 경영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그 의사 결정의 실행 당사자인 하부 조직원까지 참여하여 그 의사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그 의미가 있다. 타운미팅의 리더는 각 아이디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고(혹은 추가 정보요청) 보는 사람에게 그 결정을 이해시키는 책임을 진다. 타운미팅은 공개석상에서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권한 패턴의 변화를 추구하며, 효과적인 타운 미팅에서 비즈니스 리더는 단지 정중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사고 판단 과정을 참가자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직원들을 교육함으로써 권한을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조덕호  
표준기술기반과장  
02-600-7282  
dhcho@mke.go.kr

또한 이런 회의를 통해 관리자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관리자들이 현장 작업자들의 아이디어에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변화되어 현장 작업자들이 조직변화와 혁신과정의 주체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타운미팅을 통해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존의 경직적인 조직분화를 유연한 조직문화로

바꾸기 위해 타운미팅 기법을 실·국 단위로 확산하고, 창조적·실용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타운미팅 성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2.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타운미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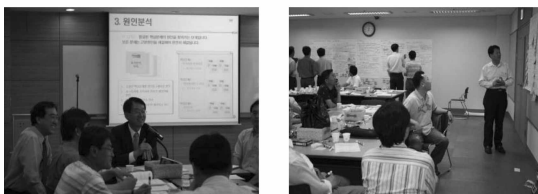
### 가. 주제 선정배경

최근 자원 및 에너지 부족 심화로 고물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CO2저감 등 친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을 위한 표준의 필요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표준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준개발 및 인증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는 실정<sup>1)</sup>이 있어, 원자재난 및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절약을 위해 표준 및 인증을 통한 기술표준원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원자재난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표준 및 인증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 실생활에서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습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표준·인증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타운미팅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술표준원 타운미팅은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식산업표준국 및 표준기술기반국 관련 담당자 16명 참가하여 표준분야 및 인증분야 방안도출을 위해 각각 2개조로 나누어 타운미팅을 실시하였다.

〈타운미팅 개최 사진〉



### 나. 분세점 분석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타운미팅은 기술표준원의 핵심 정책도구인 표준과 인증을 활용하여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즉시 이행가능한 과제를 도출하여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여 진행되었으며, 논의 방향에 대한 원칙은 아래의 3가지와 같다.

- ① 고효율, 원자재감 절감 등 최고의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방안을 찾아 도출!
- ② 기술표준원, 에너지 다수대 저용량기 등 국민의 생활변화기 기술표준원의 역할에 서고도 반영되었는가?
- ③ 기술표준인증 등 기술표준원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지침을 적극 활용하자!

분세점 분석과정을 통해 제시된 내용으로 표준분야에서는 관련 표준의 통합관리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표준 심사시 평가항목, 관련 표준의 도입 및 이행에 따른 경제효과와 분석 부족 등이 핵심 분세점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인증분야에서의 분세점으로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인증 난립, 인증 이행의 인센티브 및 홍보 부족,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 〈표준분야 핵심문제 및 주요 원인분석 내용〉

분야	핵심문제	주요 원인 분석
표준	기술표준 및 에너지절약 관련 표준의 관리의 어려움	· 동일분야 분석 및 통합 필요성 강조 제기 없음 · KS에너지기술분야, 에너지절약 관련 표준개발이 진행 중임 · 기술표준원 에너지 절감 분야 중점 추진 가능
	실제의 표준이 사용관리(활용), 에너지 절감관련 평가·인정이 되는	· 자실용, 에너지 절감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가 없었음 · 인증요소가 된 표준 항목의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음 · 인증, 인센티브 관련 표준개발에 집중해야 됨 · 인증제도를 잘 제재지정함으로써 표준개발 조속 무속
인증	지자체 관련 인증 관련 표준이 인증 관련 인증도 소극, 인증 부족	· 인증, (공정관) 인증 관련 제품으로, 문제가 있음 · 표준인증에서 실제의 소극, 표준이 인증되는 인식으로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음(Data 부족) · 표준의 홍보 도모에 대한 Speed-back 라인이 없음

### 〈인증분야 핵심문제 및 주요 원인분석 내용〉

분야	핵심문제	주요 원인 분석
인증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인증 난립(다중인증)	· 국가 정책 조율 기약이 없음 · 인증지침을 수립시각으로 인센티브 인증기준이 난립 (인증수업 = 인센티브 발급) · 인증부족, 인증부족 인증 지형, 부족 · 인증의 이점(Newby) 과잉 미흡 · 인증제 대한 홍보가 안됨
	인증사 관련 인증사 관련 인증 관련 인증도 소극, 인증 부족	· 인증제도의 중립이 됨으로, 소비자 기대 조정해 미흡 · 인증제출 정보의도 및 소비자 그림스리문화 조속 대응 · 평가방법의 객관성 결여

### 나. 혁신소파제 선정

분석된 핵심문제와 그에 대한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분야는 제기된 핵심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COREs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 COREs 프로젝트는 Countermeasures On



Re-use, cycling, manufacturing Energy saving Standardization의 영문 약자로 자원순환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CORES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순환과 에너지절약 국가표준을 3년내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관련 국가표준을 범규 기술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시키고, 표준이행의 경제효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전기전자산업, 에너지산업, 소재산업, 건설산업, 생활환경산업 등 5대 집중관리 분야를 선정하여 CORES 프로젝트를 집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인증분야는 부처협의를 통해 관련 인증제도 정비, 인증 이행기업에 인센티브 도입, 인증제품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중복인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통합인증제도 마련, 재활용 인증제품에 대한 동영상 제작, 소비자단체의 인증 관련 위원회 구성비율을 30%까지 확대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핵심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소과제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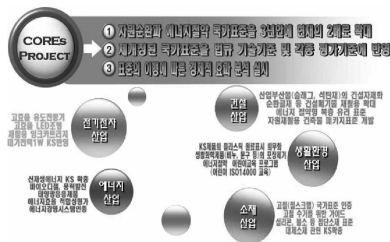
### 3. 타운미팅 결과조치 및 향후 계획

타운미팅 도출과제에 대해 기술표준원의 산부진은 CORE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TF팀을 즉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 인증제품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승인하였다. 또한 자원순환 인증 중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소비자 단체의 인증 관련 위원회 구성비율 30%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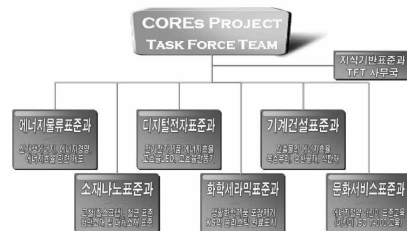
이에따라 '08년 6월말에 지식기반표준과 등 7개 과가 참여하는 CORES 프로젝트 TF팀이 구성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재활용 인증제품 동영상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7월에 작성하여 1차 동영상 제작시연회를 개최하였고 9월말에 동영상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타운미팅과 같은 혁신적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실용적이며 실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표준분야 혁신소과제〉



〈CORES 프로젝트 TF팀 구성도〉



〈인증분야 혁신소과제〉

